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 무더위 날리러 오세요”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이 올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월출산 기찬랜드’로 초대한다.

15일 (재)영암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천연 지하 암반수 물놀이장인 ‘월출산 기찬랜드’는 지난 13일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8월18일까지 운영한다. 휴장일은 이달 22일이다.

올해 개장 16주년을 맞은 월출산 기찬랜드는 아트 밸리 사업의 일환으로 ‘아트 웨이드(예술 그늘막)’ 설치와 버스킹, 마술, 마임, 버블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한다.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이 물놀이장 운영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에 펼쳐진다. 월출산 기찬랜드는 계곡과 천연 휴양

림 등 수려한 경관을 갖췄으며, 청량한 지하 암반수 물놀이장에서 힐링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천혜의 피서지다. 계단식으로 이뤄진 7개의 풀장은 수심이 0.5~1.2m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물놀이장은 자연계곡형 풀장과 실내 물놀이장을 선택해 즐길 수 있고 샤워 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찬맷길, 국민여가캠핑장, 산림욕장, 조흔현바둑기념관, 가야금산조기념관, 한국트롯가요센터, 영암곤충박물관 등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경험할

수 있다. 멜론, 수박, 복숭아 등 영암 대표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계곡 내에 설치된 평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온정을 나눌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고유한 문화 요소를 형상화한 모자·에코백·머그컵·티셔츠 등의 영암관광굿즈를 기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상점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찬랜드는 물놀이장 개장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는 물론, 비상시 신속한 대비를 위해 영암경찰서·소방서와 협조 체계도 갖췄다. 월출산 기찬랜드 입장료는 실내의 각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를 찾은 관광객들이 계곡형 물놀이장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

(영암군 제공)

내달 18일까지 운영...계곡형 풀장·실내 물놀이장 갖춰

개장 16주년 ‘아트 웨이드’설치 등 매주 주말 다채 공연

각 ▲성인 6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2천원이며, 만3세 미만과 만65세 이상 성인, 영암군민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며 (1회

총 결제금액 기준) 단, 환급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성진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시설관리팀장은 “월출산 기찬랜드는 2008년에 개장해 지난 15년 동안 단 한건의 안

전사고도 없었으며, 올해도 깨끗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물놀이장 청소, 물 교체, 운영시간 부유물·침전물 제거 등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장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장마철 피해 예방 철저” 강진원 군수 현장 점검

집중 폭우 대비 강진정수장 시설물 긴급 점검 나서

강진원 강진군수가 여름철 집중 폭우에 대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강진정수장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지난 12일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시설물인 배수지와 침전지, 응집지 등의 내부를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점검했다.

강진군은 2024년까지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98.5%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 6개 지구(삼흥·삼신·송월·도림·계울·월남지구)를 대상으로, 상수관로 113km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1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병영면 성남리 일원에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이 한창이며, 상수관로 37km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 비상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상수도 관련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상 상황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적극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자리 연연하지 않고 발로 뛰는 현장의정활동 펼칠 것”

●고경욱 목포시의원
공유재산·물품관리 관리체계 개선 요구...복지증진 등 행복 ‘눈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하며 발로 뛰는 현장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초선 고경욱 의원(원산·연산·용해동·사진)이 발로뛰는 제12대 목포시의회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쳐 눈길을 끌고 있다. 고 의원은 2년 동안 목포시의회에서 시장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실태조사와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질의했다. 고 의원은 “목포시의 공유재산 관리

급격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며 유지·보전 중심으로 파편적이고 단절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민간단체 무상·유상 대부 현황,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질의하며 “특정 단체는 사무실로 무상대부를 받은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수년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법령과 조례에 정해진 조항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항플라자 관련 소송 건과 관련한



시장질문에서는 “수역원이 체납돼 있었으나 목포시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며 “대부료

체납금과 관련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로 고지를 하고, 채권회수 절차에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목포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목포, 청년이 찾는 목포를 위해 14개 조례를 제정·개정했다.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로 17인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구성원을 늘렸고, 목포시 전

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시 우수한 미술작품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고 구매해 목포시 문화 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대를 모았다.

또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에 합쳤다.

고경욱 의원은 “목포시의회 원구성에 있어 어떠한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고 오직 열심히 공부하며 현장을 발로 뛰는 발품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항상 출마를 결심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해남군 ‘농촌 왕진버스’ 달린다

지역농협 공동 추진...18일부터 읍·면 순회 의료서비스

해남군은 15일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다.

해남군에서는 해남읍을 비롯해 삼산, 화산, 현산, 북평 등 총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9개 지역농협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농촌 왕진버스는 오는 18일 문내면에서 순회를 시작한다. 의료 검진은 농촌주민의 질병 관리

와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 검안·돋보기 서비스 등이다.

이용 방법은 고령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농협에 농촌 왕진버스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 왕진버스는 농촌지역에 필요한 의료·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주민이 필요한 검진과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신안군, 상반기 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 완료

4억1천750만원...‘대학생 생활비 지원금’ 신설 예정

신안군은 “최근 (재)신안군장학재단이 신안군의 미래를 이끌 인재 발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장학금’을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안군장학재단은 지난 6월18일 이사회를 개최, 2024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확정하고 신안군 초·중·고·대학생 등 270명에게 장학금 4억1천75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전원 선발했으며, 장학금 선발 결과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신안군 홈페이지(분야

별 정보)·(재)신안군장학재단)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은 “더 많은 지역 학생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장학금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대학생들의 생활 안정을 통한 학업 지원을 돕기 위해 ‘대학생 생활비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장학금 선발은 오는 9월 중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신안=양홍기 기자

나주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8천800만원 확보

나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천800만원을 확보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행정부 재난관리평가는 전국 재난관리책임기관 332개(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의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다.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실적에 대상으로 지난 1~4월 실시했다.

나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동,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5개 분야에서 고르게

평가를 받았다. 특히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재난관리기금관리 ▲재난안전분야 재정투자 확대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자연재난 사전 대비 체계 ▲안전교육 및 문화운동 추진 실적 ▲기관장의 재난상황 대응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재난 및 각종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대응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나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는 재난 예방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나주=정중환 기자

서해안 낙조 품은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내달 15일까지 운영...갯벌·뱀장어 잡기 체험도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품은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본격 개장했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수상무대에서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식이 개최됐다. (사진)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은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로, 깨끗한 갯벌과 아름다운 낙조, 상쾌한 소나무 숲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함평 대표 여름철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해수욕장과 어린이놀이장, 무지개 갯벌탐방

로, 오토캠핑장, 해수찜지우센터, 주포한옥마을 등 다양한 해양관광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갯벌체험, 뱀장어잡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함평군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을 신규 채용하고 LED 전광판을 통해 해수욕장 안전수칙과 일기예보 정보를 전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함평=김연수 기자

무안군(췌하나투어·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맞손’

무안군은 “최근(췌하나투어, 한국공항공사)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3차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김산 무안군수, 송미선(췌하나투어) 대표이사, 윤상규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 기관은 무안국제공항의 여객증대와 공항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내용은(췌하나투어)는 해외여행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정기·정기노선의 운항과 여행프로그램 판매·마케팅 전략으로 공항 활성화에 노력한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췌하나투어)가 무안국제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무안=김상호 기자

